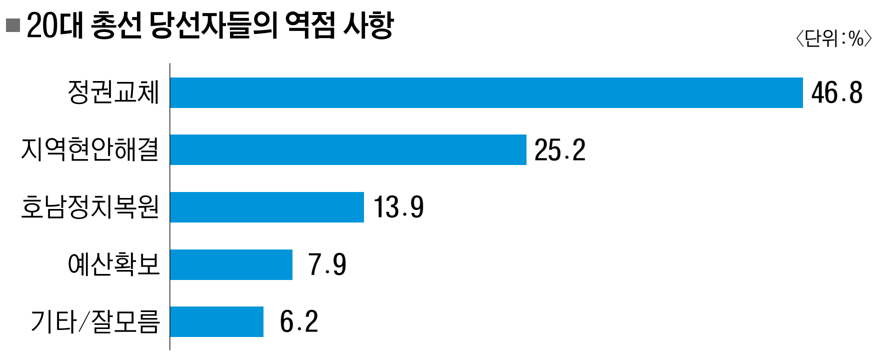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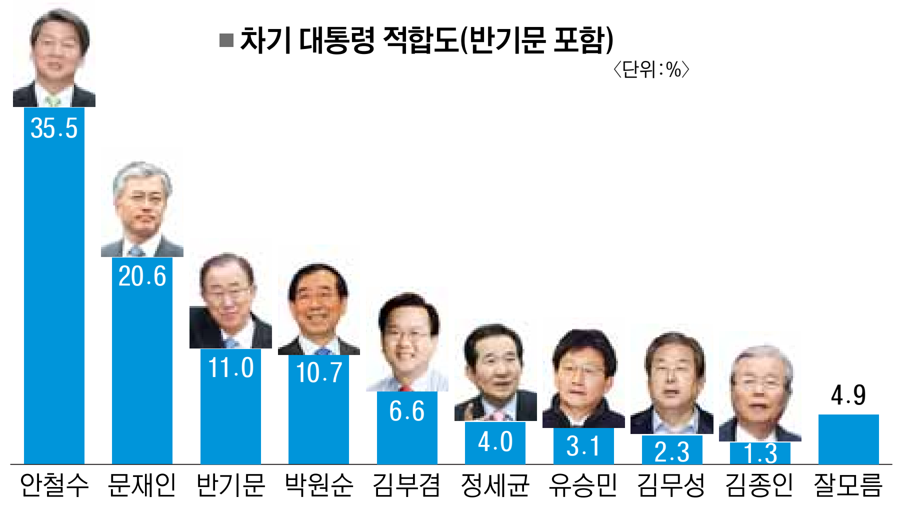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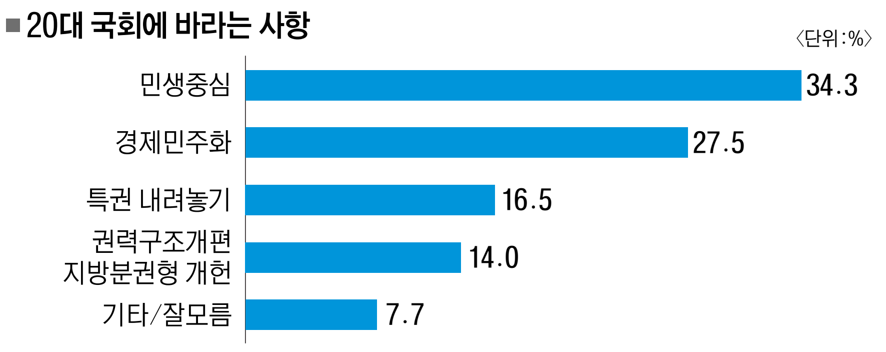
2명중 1명 "총선 당선자, 가장 힘 써야 할 일은 정권교체"







25% '현안 해결'·14% '호남정치 복원' 꼽아
정권교체 요구, 광주가 전남보다 8%P 많아

■총선 당선자 역점 사항

광주·전남 지역민 두명 중 한명은 지역의 20대 총선 당선인들에게 정권교체를 위해 우선적으로 활동해주길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.

이번 여론조사에서 '지역의 20대 총선 당선인들이 가장 역점을 둬야할 사항은 무엇이냐'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46.8%가 '정권교체'라고 답했다. 이어 25.2%는 '지역현안 해결', 13.9%는 '호남 정치 복원'을 각각 희망했다. 또 예산 확보라고 답한 응답자는 7.9%였으며 6.2%는 '잘 모른다'고 답했다.

이 같은 지역민들의 바람은 지역현안 해결은 물론 호남정치 복원도 결국 정권교체를 통해 이룰 수 있다는 판단으로부터 나온 것이란 분석이다. 때문에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1년 반 정도 남은 대선까지 정권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경우 지역민들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.

세부적으로 '정권교체' 활동 요구는 전남(43.2%)보다 광주(51.7%)에서, 20대 이하(43.5%)와 30대(43.2%)보다 40대(53.8%)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.

지역별로 광주 북구(55.7%), 광주 광산구(54.2%), 광주 동구(53.4%), 광주 동북권(52.8%)에서 '정권교체' 활동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컸다. 광주 남구(35.0%)와 전남 서남권(35.1%)에서는 '지역현안 해결' 요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.

'호남정치 복원'을 바라는 응답자는 광주(12.6%)보다는 전남(14.9%), 광주 남구(5.2%)·광산구(11.1%)보다는 서구(16.9%)에 상대적으로 많았다. 또 광주 근교권(22.4%)과 전남 동남권(17.6%)에서 '호남정치 복원'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컸다. 성별로는 남성(14.9%)이 여성(12.9%)보다 '호남정치 복원'을 희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. /박지경기자jkpark@kwangju.co.kr

광주, 민생 중심 활동 요구 높고
전남, 경제민주화에 역점 기대

■20대 국회에 바라는 사항

광주·전남지역민들은 이번 총선으로 탄생한 20대 국회가 우선 민생에 집중하면서도 경제민주화와 특권 내려놓기에 힘 써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이번 여론조사에서 '20대 국회에 바라는 사항은'이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 3명 중 1명은 민생 중심 활동이나 경제민주화를 각각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.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34.3%는 민생 중심 활동을 요구했으며 이어 27.5%는 경제민주화에 힘 써주기를 바란다고 답했다. 이어 16.5%는 특권 내려놓기, 14.0%는 분권형 대통령 등 권력구조 개편 및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을 각각 요구했다.

지역별로 전남(32.1%)보다는 광주(37.5%)에서 민생 중심 활동 요구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광주(26.3%)보다 전남(28.3%)에서 경제민주화 목소리가 컸다.

세부적으로 광주 동구(36.5%대 21.5%)와 광주 근교권(37.6%대 25.6%), 전남 동북권(33.3%대 26.2%)에서 경제민주화 목소리가 민생 활동 요구보다 강했다. 반면, 광주 광산구(49.5%대 22.6%), 광주 남구(39.0%대 27.2%), 전남 동남권(37.2%대 19.2%), 전남 서남권(36.7%대 26.2%)에서는 민생 활동 요구가 경제민주화 목소리보다 컸다.

특히 광주 동구 응답자는 경제민주화(36.5%), 특권 내려놓기(22.9%), 민생 중심 활동(21.5%) 순으로 요구하는 등 다른 지역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 주목을 끌었다.

연령대별로 60대 이상에서는 경제민주화(31.2%)가 민생 중심 활동(30.5%) 요구보다 많은 반면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민생 중심 활동을 경제민주화보다 우선적으로 요구했다.

김무성 전 대표 지지자(49.3%대 16.7%)와 김부겸 전 의원 지지자(42.5%대 34.6%), 문재인 전 대표 지지자(36.2%대 29.4%), 안철수 대표 지지자(37.6%대 24.4%)는 경제민주화보다 민생 중심 활동에 방점을 뒀다. 반면, 김종인 대표 지지자(39.4%대 14.2%)와 박원순 시장 지지자(29.0%대 24.0%)는 경제민주화를 우선적으로 요구했다. /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반기문 포함했더니… 11% 지지율로 3위 올라
김부겸·유승민·정세균 중위권 형성하며 부상

■차기 대통령 적합도

광주·전남지역에서는 차기 대통령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를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. 이번 여론조사에서 안 대표는 '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'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38.5%의 지지를 얻어 1위를 기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1.3%의 지지율로 2위를 차지했다.

박원순 서울시장이 11.3%, 더민주 김부겸 전 의원이 7.0%, 더민주 정세균 의원이 4.0%, 무소속 유승민 의원이 3.4%의 지지율을 각각 받아 뒤를 이었다.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2.7%,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.8%의 지지를 받는데 그쳤다.

안 전 대표 지지도는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광주지역 의석을 석권하는 등 호남에서 압승을 거둔데 힘 입어 지난 1월1일 발표한 본사 여론조사 때 지지율인 37.5%에서 1.0%포인트 소폭 상승하며 1위를 사수했다.

문 전 대표는 더민주의 호남 참패에도 불구, 수도권 승리로 세달반 전 기록(17.3%)보다 지지율을 4%포인트나 올리며 2위로 올라섰다. 반면, 당시 2위였던 박 시장의 지지율은 22.4%에서 11.1%포인트, 김무성 전 대표 지지율은 6.7%에서 4.0%포인트나 떨어졌다.

이전 여론조사에서 여권 후보 중 선두였던 김 전 대표는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로 호남에서도 타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.

이번 조사에서는 적지인 대구에서 당선된 김부겸 전 의원과 종로에서 여권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이긴 정세균 의원, 무소속으로 대구에서 승리한 유승민 의원이 대선후보로 거론되자마자 중위권을 형성한 점이 눈에 띈다.

세부 지역별로 안 대표는 광주·전남 전 지역에서 30% 후반대의 지지율을 기록했으나 문 대표는 광주에서는 26.7%를 기록한 반면, 전남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17.4%의 지지율을 기록했다. 특히 문 전 대표는 광주 동구(2.7%)와 광주 근교권(7.8%)에서 평균보다 훨씬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광주 광산구(33.2%)와 서구(33.0%)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도를 보였다.

연령대별로 안 대표는 30대 이상에서 문 전 대표를 앞섰으며 특히 50대(42.4%대 15.9%)와 60세 이상(47.9%대 11.2%)에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했다. 다만, 20대 이하에서는 문 전 대표가 '31.9%대 21.2%'로 안 대표를 앞섰다.

한편,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설문 대상으로 넣은 조사에서는 안 대표 35.5%, 문 전 대표 20.6%에 이어 반 총장이 11.0% 지지율로 3위를 차지했다. 박 시장이 10.7%, 김부겸 전 의원이 6.6%, 정세균 전 의원이 4.0%, 유승민 의원이 3.1%, 김무성 전 대표 2.3%, 김종인 대표 1.3%의 지지율로 뒤를 이었다.

반 총장은 전남(9.9%)보다 광주(12.5%)에서, 여성(9.4%)보다 남성(12.5%)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. 또 반 총장은 김무성 전 대표 지지층의 24.7%, 박원순 시장 지지층의 12.1%, 안철수 대표 지지층의 12.6%를 각각 흡수한 것으로 조사됐다. 이와 함께 새누리당 지지층의 19.1%, 국민의당 지지층의 13.7%의 지지를 얻었다. /박지경기자jkpark@kwangju.co.kr

성인남녀 1012명 대상 유·무선 자동응답전화 방식

■조사 어떻게

광주일보가 창사 64주년을 맞아 광주·전남지역민 정치 및 지역현안 의식조사를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(주)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했다.

이번 조사는 16일 하룻동안 광주·전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·무선 자동응답전화(ARS)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.

조사표본 추출은 광주·전남지역의 성, 연령별, 지역(구·군)별 유권자 구성비에 기반한 비례할당추출 후 무작위 추출법을 사용했으며, 유·무선 전화 임의전화걸기(RDD)방식을 활용했다.

선정된 표본은 광주와 전남 각각 506명이었으며, 통계보정은 성별, 연령별, 지역별 가중치(2016년 2월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)를 부여했다.

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 내에 ±3.1%포인트이며, 응답률은 1.9%였다.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. /최권일기자 cki@